

격 려 사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KBCSD가 내딛는 첫걸음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3대 견인차인 정부, 기업, NGO의 건전한 partnership을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는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를 앞두고, 국가적으로 결집된 준비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지평을 열어 주신 것은 WSSD 국가준비위원회를 맡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KBCSD 창립에 애써 주신 허 동수 KBCSD 발기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촌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개발(Development)의 조화가 균형을 상실하면서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산림파괴와 사막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국토의 오염과 난개발의 모습에서 살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인식과 행태의 지속가능성 부재는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제발전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후손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현세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마련하고자 인류 공동의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년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서 채택된 의제21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WSSD가 개최되며, 지구환경위기와 빈곤문제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논의와 각종 국제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관합동의 논의기구로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난 2000년 9월에 발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실현되는 국가경영 및 사회구조의 형성을 위하여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체제(New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절대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방식이 아니라 정부, 기업,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가 한데 모여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갈 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목표에 균형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을 갖춘 주체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다국적기업의 융성 등 세계화의 추세는 지구촌을 단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발전을 경영이념의 하나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품의 경쟁력이 뛰어나더라도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기준 준수,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기대요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 수준의 변화는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이 그 소유주나 소수의 전문 경영인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주, 노동자, 고객, 지역주민,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 이러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기업경영방식(Corporate Governance)입니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 터득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paradigm이며, 정부나 NGO의 간섭과 감시보다는 리더 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전 산업계에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주효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창립하는 KBCSD의 기능은 어느 정부기관의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앞으로 그 활약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다행히 KBCSD 창립에 솔선하여 참여하는 개별 기업의 면면을 보면, 기대 이상

의 역할을 해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업경영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은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KBCSD의 발족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역사에 남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2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강 문 규